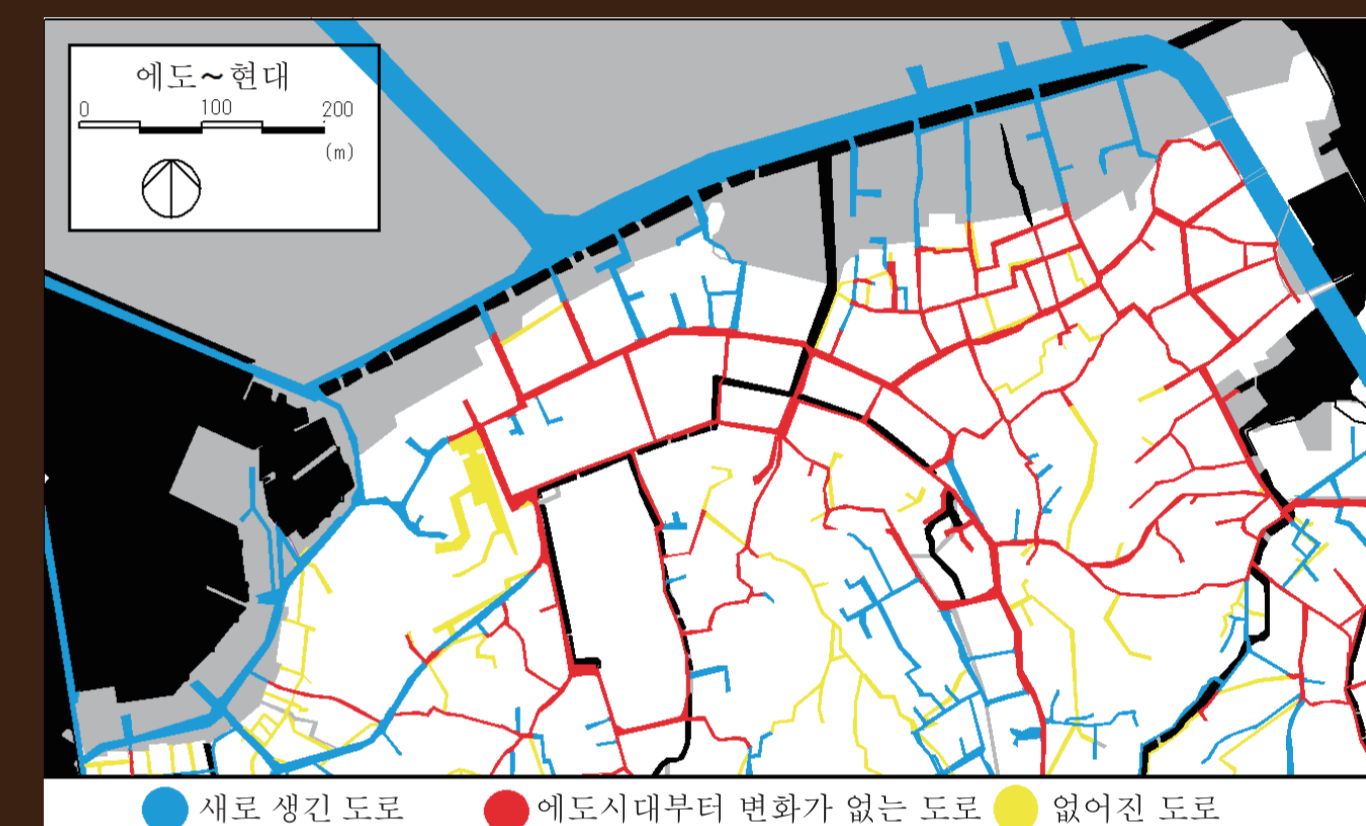


# 성하 마을(城下町) 후카호리의 형성과 현재



과거 무사 저택들이 있었던 거리  
출전: 나가사키시 편입 50주년 기념사업 실행위원회



위: 도로의 변천(근세~)

왼쪽: 나가사키만 입구의 주축이었던 후카호리  
후카호리는 그림 지도의 왼쪽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47년 쿠로후네(나가사키 대항도)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 후카호리의 성립

후카호리는 조몬(縄文) 시대의 유적이 확인되며, 원시·고대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도하치가우라(戸八ヶ浦)라는 지명이었던 이곳은,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후카호리 요시나카(深堀能仲)가 영주로 임명되어 온 것을 계기로 그의 이름을 따 후카호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후카호리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성하 마을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후카호리 지역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사키만 입구에 위치한 후카호리는 에도 시대에는 이곳을 지나가는 배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후카호리는 1871년에 나가사키현의 관할이 되어, 1955년에는 나가사키시에 편입되었으며, 1967년에 후카호리부터 고야기(香焼) 사이의 매립공사가 완공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후카호리 중심부에는 지금도 성하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길이 많이 남아있으며, 성하 마을 특유의 열쇠형 도로와 저택을 둘러싼 돌담을 볼 수 있습니다.